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인문사회계열 문제지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오.
3. 답안지의 인적사항 표기란에는 반드시 '수정이 불가한' 흑색 필기구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연필, 볼펜, 샤프 등)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문제에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보안봉투에 보관한 전자기기라도 시험 중 진동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 불가.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인문사회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땅 투기로 졸부가 된 최 사장이 마을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든 후 이장 익삼을 통해 알게 된 동네 건달 임종술에게 저수지 감시원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한다.

"사람이 운수 불길혀서 잠시 잠깐 이런 촌구석에 처백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보들 마시오! 에이 여보쇼들,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가! 내가 게우 오만 원짜리 푼수배끼 안 되는 것 같소? 나 임종술이, 이래 뵈야도 왕년에는 사장님 소리까장 들어 본 사람이요!"

"내가 자네라면은 나는 기왕 낚시질허는 짐에 비단잉어에다 월급 봉투를 한목에 같이 낚어 올리겄네. 그냥 소일 삼어서 감시원 완장 차고 물 가상이로 왔다리 갔다리 허면서……."

"완장요!" 완장이란다! 왼쪽 팔에다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다!

고단했던 생애를 통하여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 온 숱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의 뇌리를 스쳤다.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었다.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었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숱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 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아들한테서 저수지의 감시원으로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육순이 내일모레인 운암댁은 삼 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듯한 상쾌함을 맛보았다. 월급 오만 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다.

"허는 일도 별로 없구만요. 그저 감시원 완장이나 차고 슬슬 바람 쐬기 겸 대봇둑이나……."

어머니가 느끼는 기쁨이 여간만 큰 것이 아닌 줄 익히 아는지라 종술은 그 기쁨을 더욱 배가할 요량으로 대수롭지 않은 척 무심히 지껄임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그러나 운암댁의 귀에는 그 말이 결코 무심하게 들리지가 않았다.

"뭣이여야? 완장이여?" 너무도 놀란 나머지 운암댁은 눈앞이 다 캄캄해 왔다.

"너 그것 안 둘르고 감시원 헐 수는 없겄냐?"

당치도 않은 말씀이었다.

"에이 참! 엄니는 동네서 사람대접 조깨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여엉 못마땅허요?"

"돌아가신 냥반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완장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도 다아 지 핏줄 탓인갑다."

"그 완장허고 이 완장은 엄연히 승질부터가 달르단 말이요!"

홧김에 종술은 그예 또 몽니*를 부리고 말았다.

*몽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

(나) **[앞부분 줄거리]**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는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 떼가 몰려온다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마을에 알린다. 어느 날 파수꾼 '다'는 처음부터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운반인을 통해 촌장에게 보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얘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마을은 늘 안전했어.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다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얘,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촌장 얘,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다 …… 네?

촌장 마을엔 오지 마라.

다 (침묵)

촌장 그럼, 잘 있거라.

(다) **[앞부분 줄거리]** ○○시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권 씨는 무리하게 거금 이십만 원을 마련하여 철거민의 입주 권리를 손에 넣는다. 그러나 입주는커녕 직장과 재산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감옥살이까지 한 권 씨는 '나'의 집 문간방에서 셋방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남편이 여전히 벌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진통이 너무 길고 악착스러운 데 겁이 났던지 권 씨는 통금이 해제되기도 전에 부인을 업고 비탈길을 내려가느라고 한바탕 북새를 떨었다. 북이 북채 위에 업힌 모양으로 권 씨 내외가 우리 집 문간방을 빠져나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한근심 더는 기분이었다. 미역 근이나 사 놓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오면 병원에 가 보라고 아내에게 이르고는 출근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

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위에게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십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 (중략)

그것뿐이었다.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모퉁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힌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른다.

산부인과에서는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십만 원을 건네자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지시했다.

요란한 수술치곤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네 댄가 다섯 대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추예요, 고추!"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싸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 갔다.

(라) 상우는 강당을 빌리기 위해 직접 ○○구청을 찾아가 ○○구 공무원과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상우 안녕하세요. 나라 고등학교 일 학년 박상우입니다. 저희 사진 동아리에서 '아름다운 웃음'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공무원 학생 동아리라면 학교에서도 전시회를 열 수 있을 텐데 굳이 구청 강당을 전시회 장소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우 이번 전시회는 우리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장소로 학교보다는 구청 강당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우리 구에서는 강당을 주민 공동체 활동 장소로 빌려드립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강당을 빌려드리지 않아요. 따라서 먼저 사진 전시회가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강당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우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등학생인 저희가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할 거예요.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자는 의미도 있지요.

공무원 그것만으로는 전시회의 공공성이 좀 약합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좀 더 내세울 것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상우 네, 있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학교 사진 동아리 누리집에 올리면 한 장당 일정 금액이 모금됩니다. 그렇게 모금된 돈은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이 정도면 전시회의 공공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사진 전시회를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상우 네, 정말 잘 되었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당을 빌릴 수 있나요?

공무원 아, 그건 곤란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만 강당을 사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또한 한 개인 및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상우 그렇군요. 저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해서, 평일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3시간씩 강당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시를 하기에 2일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공무원 그렇다면 다음다음 주에 전시회를 하시지요. 그때는 강당을 사용하는 행사가 없거든요. 학생들이 강당을 빌려 쓰는 시간이 짧기도 하니, 3일간 쓸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상우 전시회 날짜를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줄면 관람객이 적어질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아쉬운 일입니다. 전시회를 여는 3일 동안 최대한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싶은데, 학생들인 저희로서는 지역 주민에게 전시회를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요.

공무원 저희도 바쁘기는 하지만, 전시회의 성격이 좋고 공공성도 충분하니까 홍보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해도 좋겠네요. 제안하신 전시회는 우리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상우 저도 동아리 사진 전시회를 열 공간이 마련되어 기쁩니다. 구에서 홍보를 도와주신다면 성공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마) **[앞부분 줄거리]** 아파트 2층에 사는 회사원 '공'은 승강기를 이용하지도 않는데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관리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한다. '공'은 교체 비용 부담이 부당함을 이야기하지만, 관리소장은 승강기 교체 비용 납기일이 다가오고 있고,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하며 '공'의 의견을 묵살한다.

"내일이 마감이라서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관리소장이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자 공의 얼굴이 삐뚜름해졌다. 사방을 막아선 벽이 점점 조여 오는 듯했다.

"승강이가 아니라 승강기입니다."

꿈쩍도 않는 벽에 대고 주먹질하듯 공이 버럭 소리쳤다.

관리소장이 놀란 표정으로 공을 쳐다보았다. 공은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 관리소장에게 들이밀었다. 관리소장은 입을 꾹 다문 채 눈만 뒤룩거렸다*.

"승강기를 안 쓴다는 증거 있습니까?"

공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커진 한쪽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더 커졌다. 관리소장의 멱살을 잡지 않기 위해 공은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야 했다. 공은 코를 실룩거리며 관리소장을 노려보았다. 관리소장은 눈만 뒤룩거릴 뿐이었다. 아직 볼일이 남았느냐는 태도였다. 삐뚜름해진 공의 얼굴이 파랗게 달아올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 하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래 봤자 소용없을 게 뻔했다. 눈앞에 버티고 있는 벽을, 억지를 부리는 벽을 부숴 버리고 싶었다.

"증거를 대면 될 거 아닙니까?"

관리비 고지서를 낚아챈 공은 관리 사무소를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사용하지 않는 증거를 대라고?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공은 순식간에 문서를 작성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공을 본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글을 적고 서명 받을 표를 덧붙였다. 출력한 문서를 들고 집을 나서는 공의 심장은 삐뚜름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중략)

사달이 난 것은 12층에서였다. 1203호 여자는 공이 설명하는 내내 팔짱을 풀지 않더니 공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뜸 소리쳤다.

"아저씨, 아파트 시세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아파트 시세랑 무슨 상관입니까?"

공이 항변했지만 1203호 여자는 눈도 깜짝 안 했다.
"막말로 낡은 엘리베이터 때문에 사고 나서 누가 죽기라도 하면 그쪽에서 책임질 거냐고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엘리베이터를 바꾸지 말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서명 받으러 다니는 그쪽이야말로 지나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쓰지도 않는데 교체비를 무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뭐요?" 공이 목청을 높였다.

*뒤룩거리다: 크고 둥그런 눈알이 힘 있게 자꾸 움직이다.

(바) 복잡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이 곧 가동된다. 이에 앞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폐장 운영의 원칙을 '안전'과 '신뢰'로 정한 후 시운전 현장을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정보 공개에 나서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시운전 기간 중 공개 관람을 실시해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방사성 폐기물 관련 기술을 쉽게 설명하는 것은 신뢰 구축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에 '소통의 날'을 지정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방폐장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누리집에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 감시 기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폐장 운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 해당 지역은 특색 있는 세입자들이 모여들면서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다. 이 지역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에 상권의 활성화에 공헌했던 세입자들이 지역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청 책임자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 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례에 들어갈 '임대료 안정화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물주 대표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구역 운영'이라는 대원칙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건물주분들이 법에서 지정한 범위를 넘어서 임대료의 인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산에 대한 운영과 처분의 권리는 상위법에서 정한 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입자 대표 건물주 대표님의 말씀도 이해하지만,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이른바 '뜨는 지역'이 된 것은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패션, 문화의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주요 상점들이 우리 지역을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구청 책임자 '임대료 안정화 협약'의 주요 내용이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건물주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도 협약에 참여해 주신 건물주분들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세금 면제 혜택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건물주 대표 협약에 참여한 건물주분들에게 어떠한 손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더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책임자 그 부분은 앞으로 차차 조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참할 의향이 있는 건물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도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건물주 대표 구청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한다면, 이 협약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가능한 한 많은 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세입자 대표 저도 '임대료 안정화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세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구청의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저희 입장을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서울과 경기 지역, 50여 개의 지하철 출입구에는 빨간 조끼를 입고 잡지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10개국에서 발간되고 있는 잡지 『빅이슈』의 한국판 판매원들이다. 빅이슈코리아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재능 기부로 만든 잡지를 노숙인들이 직접 팔게 하면서 자활을 돕는다. 빅이슈코리아의 판매원들은 이 잡지를 2,500원에 사서 5,000원에 판매하는데, 2주간 성실하게 일하면 회사에서 1차로 고시원비를 한 달간 지원하여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이후 6개월간 꾸준히 일하면서 1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모으면 임대 주택까지 지원해 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빅이슈코리아에서 일했던 판매원은 약 400여 명으로 그중 41명이 임대 주택을 얻었고, 15명은 재취업에 성공하여 자립하였다.

(자) 짐 허버드는 미국의 한 통신사 사진 기자로 일했다. 그는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근처의 노숙인들을 주제로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날 그가 방문한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인의 아들이 찍은 사진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바로 이 지역 아이들에게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와 소도구들을 들고 매주 노숙인 시설에 가서 카메라 다루는 법과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노숙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60%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마약과 폭력에 빠져 있었다. 이 아이들이 사진을 통해 자기를 찾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슈팅 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1990년 9월, 1년 반 만에 아이들의 사진을 모아 첫 전시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53명 아이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차) 볶음밥은 자유롭다. 딱 정해진 조리법도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 혹은 같이 먹을 사람이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것을 뺄 수도 있다. 재료의 조합은 무궁무진하기에 볶음밥은 요리하는 사람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볶음밥을 발견하기도 한다. 밥과 불고기가 만나면 평범한 불고기볶음밥이지만, 불고기볶음밥에 셀러리를 썰어 넣으면 갑자기 평범한 불고기볶음밥이 마법에서 풀려난 왕자님처럼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제법 어울리는 재료라 생각했는데, 막상 요리해 보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실패에서 배우면 된다. 여러분은 실패를 통해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가 서로 어울릴지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만의 궁극의 볶음밥 요리법을 완성하면, 여러분은 성인의 세계로 하산해도 된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부탁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관리소장'의 태도를 비판하고, 제시문 (마)의 '공'이 느끼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소장'의 역할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빅이슈코리아'와 (자)의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의 공통점과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자)의 아이들이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문 (차)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